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용택 시인

순창으로 이발하러 갔다. 목욕탕 안에 이발소가 있다. 이른 아침이라 나이 든 사람들이 많다. 나이가 만물 어가는 육체는 움직이는 동작이 불변하고 직립의 기둥이 위태위태하다. 육체는 체념하는 중인데 왕년의 일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몸들은 외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성질난다. 이발하고 강건사로 물을 받으려 갔다. 몸에 좋다는 이 물을 받아다가 먹은 지 2년쯤 되었다. 이 물을 마시고 견강해지거나 오래 살 생각은 없다. 물이 맞아서 이 물은 아내는 고추장 담고, 나는 북어물에 찬물로 마신다. 물 받으러 가는 길은 순창읍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낮은 두 고개를 넘어 몇몇 마을을 지난다. 낮은 산과 들이 울퉁불퉁하다. 아늑한 들과 저 멀리 산아래에 마을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다. 낮은 고개 하나를 넘어 들길을 가는데, 저쪽 마을 앞 도로에 초등학교 3학년과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멀리서 왼손을 번쩍 들고 길을 건넌다. 내 차 때문에 저런 강한 경고 자세를 취하고 길을 건넌 텐데, 그러나 내 차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살구가 익을 무렵

너무 멀어서 나는 혼자 크게 웃을 뻔했다. 이 길은 차들의 왕래가 아주 뜸한 곳이다. 그래도 아이들은 학교와 집에서 단단히 교육 받은 대로 교통 도덕을 철두철마하게 준수한다. 나도 속도를 아주 줄였다. 길을 건넌 아이들이 상당히 높은 논두렁에 올라서 있다. 그 모습도 웃겼다. 아이들은 분홍색 잠바에다 짧은 치마를 입고 흰 스타킹 차림이다. 둘 다 가방 색깔 같다. 등교 차림이 주위 풍경에 약간 어색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서 앞뒤를 살핀 후 차를 멈추고 차창을 천천히 열었다. 나는 반갑고 명랑한 표정으로 "애들아, 안녕!"하며 손을 흔들었다.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반가운 풍경이었다. 아이들이 서 있는 논두렁 풀잎에 이슬이 맺혀있다. 아이들이 딛고 지나간 이슬 털린 발자국이 두어 군데 보인다. 아이들 신발에 이슬이 묻어있을 것이다.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나를 향해 고개를 까딱하더니, 팔을 반쯤 들어 두어 번 손을 흔들고, 동생은 언니 누구야, 하는 표정으로 언니를 올려다본다. "학교 잘 갔다 와" 나는 다정하고 다감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아이들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가다가 백미러를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내 차를 바라보고 있다. 어떤 영화 장면처럼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고 크게 흔들며 주었다. 지난 봄 날 이 길 오른쪽 마을 2층 집 붉은 기와 지붕 위로 살구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났다. 아이들이 그 집에 사나? 언젠가 평양에 갔을 때 보았는데 개산문 부근에 가로수가 살구나무였던 것 같다. 길가에 이발소가 있어서

우리창 너머로 이발하는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의자에 앉은 사람과 이발사, 이발사가 가위질을 하다가 고개를 살짝 돌려 우리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이발사 얼굴을 잊을 수 없다. 그때 기본 북쪽 어느 고원에 흰 감자꽃이 서늘할 때였으니(이전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지만) 아마 살구가 익을 무렵이었는지도 모른다. 갔던 길을 따라 집으로 왔다. 아이들 둘이 논두렁에서 있던 단정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제 생각해 보니, 그 길에서 학교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을 처음 만나서 뭔가 그렇게 낯설고 인상적이었는지도 모른다. 도시에서 시골을 바라보던 서늘한 생각과 논두렁에 낯선 듯 서 있던 아이들의 빈틈없던 모습이 눈에 어른거린다. 아이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약간 파리하다는, 생각이 났다. 논두렁에서 있던 아이들과 평양의 거리와 감자꽃은 서로 이어지지 않은 풍경인데도 말이다. 이상하여, 오히려 아주 이상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그 무엇인가 어떤 중요한 어떤 것들을 버려둔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살아간다는 생각에, 나는 허전한 어떤 구석이 사라지지 않아 자주 허기가 찾아왔다.

종교칼럼

한 생명의 소중함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사회복지회 부국장

어눌한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친다. 이주민들, 특히 미등록 이주민들이 차별과 폭력 등의 난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아프지만 미등록이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큰 병을 앓고 있는데 치료는 고사하고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광주이주민지원센터로 도움을 청한다. 외국인으로 등록된 이주민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한국 생활을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들은 생명권과 인권과 자유권을 보장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미등록 이주민들을 등록처럼 무조건 합법적으로 승인해 주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만 하는 생명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까지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서이다. 최근 저출산의 심각성에 놓인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이주민 친구들의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도움 요청도 쇠도하고 있다. 적게는 스물다섯 살 많게는 서른 살에 가까운 친구들이 혼인하고 임신하여 출산까지 이르게 된다. 타국에서의 어려운 삶에서도 출산하려는 이들에게 대단함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동반하고 있다. 센터에는 두 분의 수녀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한국 수녀님이고 한 분은 베트남 수녀님이요. 최근 거주 이주민 중 베트남 이주민들이 많아 베트남 수녀님의 역할이 매우 크다. '아기 예수의 집'이라는 곳에서 미등록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센터에서는 2023년 초반부터 이주민 임신부와 아이들을 위해 영양제와 분유, 기저귀를 나누는 데 집중하였다. 왜냐하면 대상자인 임신부와 아이들이 무려 40세대 정도 되는데, 임신·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더 앞섰다. 광주이주민지원센터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가톨릭교회의 비영리 민간단체이고 성인뿐만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산모와 아이의 병원 진료까지도 돕고 있기 때문이다. 후원과 봉사자와 현장에서 함께하는 동반자들이 많다면 종로역만 재원과 인력의 부족은 언제나 큰 딜레마이다. 특히 태어난 아기가 미숙아이거나 병을 앓고 태어나 인큐베이터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큰 낭패다. 미등록 이주민 친구들이 낳은 아이는 국적도 없지만 의료보험 체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미등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등록이라는 조건은 소중한 생명을 가진 인간 존재라는 분명한 사실을 거부할 수 없다. 한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돌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명이고 책무라고 생각한다. 생명을 보호하는 존재는 생명을 지닌 우리가 보호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고 생명력이 넘친다. 희망을 잃고 벼랑 끝에 서 있지만 그를 밀쳐내지 않고 끝까지 잡아주는 것이 모든 생명을 지켜내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안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벌써 서너 명의 미숙아들이 우리 사회의 도움으로 몸무게를 유지했고 젖병을 물었고 이제는 웃으면서 걷기까지 한다. 이제 곧 부모의 말을 배우고 한국말까지 배우게 될 것이다. 센터는 엄청난 업무와 빚발치는 도움의 요청으로 여유가 없다. 빠른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도 도움의 요청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임을, 살아 있는 유기체의 한 생명기에 기꺼이 헌장으로 달려가 함께 하는 것이다. 어떤 대가나 영광도 없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나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우리는 서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서로를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고, 그 생명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자기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편안함과 안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까지도 행복과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와 똑같은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기고

광주에서 태어나 자랐을 뿐인데



남주성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년

매년 5월이 되면 아버지는 내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군인이 집안으로 들어와 총구를 배에 들이밀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들려주는 똑같은 이야기는 내 기억 속 첫 5·18은 공포, 분노, 억울함이 있었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적엔, 나 또한 공감하여 분노했던 듯하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에 지친 것이 사실이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크게 와닿지 않으며, 단지 역사적 사건의 하나로 바라보고 있다. 아버지가 전하려 했던 5·18은 내 안에서 희미해졌다. 그러나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나에게 5·18은 때 어쩔 수 없는 꼬리표였다. 타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며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출신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5·18에 대한 화제로 흘러가고 아버지에서부터 전해 들은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은 미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

처럼 신기해하며 하나같이 동점심을 표한다. 그런가 하면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세상 속 사람들은 대놓고 광주를 비하하고 5·18을 폭동이라며 왜곡한다. 그들은 사실에 관심이 없다. 그저 괴롭힘 대상이 필요하고 즐거움을 위해 과격힌 언행을 일삼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며 느껴지는 감정은 분노가 아닌 고립감이다. 대한민국 사회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 그러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넘기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모른체하며 스스로를 꺾어내린다. 그들과 섞이기 위해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뿐인데, 타인에게 원치 않는 시선을 받고 잘못된 것이 없는데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 과도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희생되어 왔다는 생각 또한 떨칠 수 없다. 정치인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반드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는 말과 진실, 비극 따위의 송고함으로 포장하여 홍보하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면 지지부진하기 십상이다. 비슷한 과정을 여러 번 지켜본 국민들은 5·18을 정치 도구로 바라보며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광주를 혐오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인을 생각해 본 결과 5·18이 주는 메시지가 송고함과 공포, 분노, 억울함 등의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

에 치중되어 있으며,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열여섯, 세대와 지역을 넘어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능의 수명이 다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금 이 시대는 5·18정신 계승의 위기이며, 사회가 걸어온 5·18정신 계승 작업의 문제점을 반성할 때이다. 그저 광주에서 태어나 자랐을 뿐인 청년이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상황은 분명히 잘못됐다. 동정심도 고립감도 느끼고 싶지 않다. '5·18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 공직자는 이 질문에 대동(大同)의 정신이라 답했다. 무질서하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웃의 안위를 생각하는 따뜻한,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청렴함. 그야말로 배워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다. 이러한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5·18의 새로운 사회적 메시지로 적합하다. 물론 그동안 전파되어 왔던 5·18민주화운동의 메시지가 폄하되어선 안될 일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기억이 열여섯에 따라 메시지가 가진 힘이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야기된 역효과가 광주의 아들 딸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충분한 토론과 재고(再顧)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社說

44주년 맞은 5·18, 헌법에 오월정신 새겨야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4주년을 맞는다. 강산이 네 번 하고도 반 가까이 바뀌는 동안 5·18의 피해 규모 등 실제적 진실은 많이 밝혀졌지만 발표 책임자 등 핵심적인 진상 규명은 아직도 미흡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5·18을 과거의 역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일부에선 왜곡 폄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상황에서 5·18의 가장 큰 현안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다. 독재정권에 분연히 맞서 민주화의 주춧돌을 놓은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함으로써 미흡한 진상 규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왜곡 폄하 세력을 근절하는 법적 장치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오월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여론이 후호적이다. 5·18기념재단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도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여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이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등 범야권도 헌법 수록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그렇다면이라도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광주시민들에게 확답을 줘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물론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18일 44주년 5·18기념식장이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 마침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데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22대 국회 첫 의제로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로 선언하는 것은 어떨까. 오월 정신을 헌법에 새긴다면 광주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을 통합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고독사 예방' 밀착 행정 통해 실효 거두길

고령화 시대를 맞아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나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해양에너지와 손잡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고독사 위험 징후 감지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광주시는 잇그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철 한전 사장,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5개 자치구 통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독사 예방 정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한전, 해양에너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위험 징후 감지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고독사 고위험군의 전기 사용량을 분석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알리는 방식이다. 해양에너지 고객센터 상담원들도 고독사 위험 시민과 1대1로 매칭해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는 등 고독사 고위험군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공인중개업소·편의점 등 동네 상점과도 연대해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이웃지원단을 운영하며 고독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고독사의 76.6%가 40~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는 점에 주목해 올해 광주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위험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고립된 이웃을 주기적으로 찾아가 안부를 살피는 '이웃지기' 시민을 연결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보이스봇 안부 전화와 움직임센서를 활용해 위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한다는 것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광주시가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고독사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병폐이기 때문이다. 시는 사례별 상황을 꼼꼼히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통해 고독사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일곱 살이었던 탓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총성이 가장 요란했던 걸로 볼때 전남도청 진압작전이 진행된 5월 27일로 추정한다. 우리 집은 전남도청이 지척인 동구학동동남은 골목 맨 끝이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장발의 남자 세 명이 어깨에 총을 메고 들어와 하룻밤 잠을 청했다. 밥과 국이 담긴 냄비들이 연탄불 위에 다시 올려졌고 찬이 상 위에 놓여지기 무섭게 그들의 식사는 끝이 났다. "총알을 막을 수 있다"며 엄마가 머리 끝까지 덮어준 솜이불 속에서 누나와 함께 밥을 먹는 그들을 숨죽여 지켜봤다. 총소리가 거세질수록 고양이머리 바람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다. 우리 가족의 귀는 마당에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도 잡아낼 정도로 예민했지만 건넌방의 그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새벽녘, 채 어둠이 가시기 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왔던 것처럼 조용히 떠났다. 뒷장찌개 냄새 가득한 골목에서 더는 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집으로 달려가지 않을 정도로 자랐을 때, 그들이 시민군이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날 일을 말 하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다그침을 여러 번 들어야 했을 때, 그날의 진실이 담긴 사진첩과 영상도 보게 됐다. 여전히 그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생사는 궁금하다. 5·18민주묘지 유영보관소와 기록관에서 사망자 사진을 볼때면 늘 '그들'이 궁금하다. 여전히 이름 없는 시민군1·2·3은 그날 골목을 나와 자신들의 집으로 갔을까 아니면 도청의 동료에게로 갔을까. 그날 밤 초라한 밥상이 그들의 마지막 만찬은 아니었을까. 5·18 공법단체의 각종 비리로 광주가 시끄럽을 먹는 그들을 숨죽여 지켜봤다. 다. 이름이 알려지거나 이름 알리기에만 급급한 오월 인사들이 이름값은 못한 채 청구서만 내밀면서 벌어진 일이다. 일부 인사가 시민을 쫓고 '5월의 주인' 행세를 한 탓이다.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명예'이며, '채권'도 '이권'도 아닌 '채무'이고, '희생'이고 '봉사'이다. 5·18기념재단 창립선언문의 송고한 의미를 지키는 게 시민군1·2·3을 영원히 기억하는 길이 아닐까.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시민군1·2·3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